

# 예배순서

|         |   |         |
|---------|---|---------|
| *경배와 찬양 | 임재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 나의 하나님 | 다같이     |
| 대표기도    |   | 다같이     |
| *성경봉독   | 창 1:26-28, 2:7, 2:21-22                         | 전춘우     |
| 말씀      | 21세기에서 바라본 창조                                   | 김상범 전도사 |
| 응답찬양    | 다윗의 노래  | 다같이     |
| *봉헌     |   | 다같이     |
| *봉헌기도   |   | 김상범 전도사 |
| 광고 및 환영 |   | 안혜진     |
| *파송찬양   | 민족의 가슴마다  | 다같이     |
| *권면과 기도 |   | 김상범 전도사 |

##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옵니다.  
 저희 입술을 열어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저희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눈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집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정죄하며  
 판단했음을 고백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이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먼저 정결함을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

## 응답찬양

### 다윗의 노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 뿐이네  
 나 돌아갈 내 분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 21세기에서 바라본 창조 (창1-2장)

26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2:7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21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22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현대 과학이 틀렸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조이야기를 믿음의 영역으로만 한정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창조이야기를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과학적 발견을 수용하면서 창조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워도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은 이 세 번째의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와 과학은 같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연구대상인 물질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롬1:20)

신앙과 이성, 창조와 과학의 **통합적 접근법**은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정통성이 있으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과학과 세상을 아우르는 신앙관 정립에 도움을 주고, 좀 더 너그럽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며, 특히, 세상의 기원과 종말, 인간의 상태와 구원의 길을 제시한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함과 인간의 유한함에서 기인된 상징과 계시와 은유적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선언입니다. 이는 설명문도, 역사서도, 과학서도 아닙니다. 이 장리적 특성을 잘 이해해야 이 글이 쓰여진 목적에 맞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빅뱅과 창조이야기) 빅뱅이론은 1927년 벨기에 조르주 르메트르 라는 분이 최초로 주창한 이론인데, 별들의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통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역으로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우주가 골프공보다도 작은 한 점이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팽창속도, 우주나이, 지구나이)

반면, 신학계에는 성경인물의 가계도를 연구하여 지구나이를 계산해 왔습니다. (대략 6천년) 이 방법에는 여러가지 오류가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교계는 대부분 **진화론**에 대해 반대하여 왔습니다. (창 1:21)

이미, 종교는 과학에게 유사한 오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동설, 지동설 이슈가 그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지동설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 지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면, 과학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과학은 물질세계의 증거에 입각한 증거들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무에서 유로 무언가가 창조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접근방식이 아닙니다. 빅뱅도 초기 우주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있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초기우주 물질이 왜 갑자기 뻗고 터졌는지 과학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과학은 빅뱅이전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성은 빅뱅 이전에도 분명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식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무신론이 유신론보다 더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단순 방정식, 상수 이야기)

창 1:1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1세기적 해석)

## 말씀산책

성경에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 1:1-2:3은 선언적, 공식적, 권위적이며,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7일째 쉬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P) 창 2:4-2:25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관계로 그려진 스토리텔링 식의 이야기입니다. (J) 따라서, 창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 점과, 우리의 영과 육은 안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이야기 다 창조의 핵심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인간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 영적 존재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 모든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가릴 수 없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로봇으로부터 구별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영과 혼입니다. (창 2:7) 인간 창조 이야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에도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 목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1. 나는 과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생각이 변한부분이 있으면 나누어 보세요.
2. 창조와 성경에 대해 과학과 이성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과 순수한 신앙적 접근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3.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철저히 우리 인간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사랑, 책임 등)

## 파송찬양

### 민족의가슴마다 (그리스도의계절)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ZOOM 예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청년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7시 (매달 첫주 금요일 제외)

## 1:1 제자양육 동반자반 및 1기 인도자반 모집

- 인도자반: 2/9-3/30 (8주, 수), 타교회 인도자반/동반자반 및 제자훈련  
수료자 중 희망성도  
- 동반자반: 2월부터 (16주), 전 희망성도  
- 신청: 다음 주일 (1/30)까지

## 팀원모집

예배팀 : 방송, 음향, 카메라 등으로 섬기고 싶은 분의 지원 받습니다.  
(문의 : 신승윤)  
찬양팀 : 싱어, 퍼스트, 세컨드, 드럼, 기타, 베이스 등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  
은 분들의 지원 받습니다 (문의 : 김태동)

## 현금 내역 신청

2021년 현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문의 : 최병진 장로 (cbjkym@yahoo.com; 512-497-7644)

## PSALM

## 예배/모임

|                   |                |
|-------------------|----------------|
| 주일청년예배            | 주일 1pm         |
| 금요기도모임            | 금 7pm (매월첫주제외) |
| 정기리더모임            | 매월 첫주 금 7pm    |
| 청년목장              | 주중 또는 예배후      |
| Good Morning 말씀산책 | 월-금 6:30am     |
| 토요무릎기도회           | 토 6:30am       |

제 50권 4호

JAN 22  
2022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     |                    |
|-------|-----|--------------------|
| 담당전도사 | 김상범 | cptksb3@gmail.com  |
| 지도장로  | 김종환 | jybella@utexas.edu |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     |                        |
|--------|-----|------------------------|
| 라이드 팀장 | 안혜진 | anhyejin0714@gmail.com |
| 새가족 팀장 | 하지수 | jisujeon2015@gmail.com |

## 양육과정안내

##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 -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